

# 패션아트를 위한 초현실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 - 몸의 형태 표현을 중심으로 -

우송정보대학 토탈패션계열 전임강사 류근종\*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강병석

### · 목 차 ·

- I. 서론
- II. 초현실주의와 오브제
- III. 패션아트와 몸
- IV. 초현실주의 작품의 몸 형태 분석
- V. 결론

### <요 약>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업에 몸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전반에 걸쳐 연구되었던 몸, 초현실주의, 패션아트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업에 나타난 몸의 표현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패션아트의 조형표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 현대 조형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으며 패션에도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패션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특징은 현대의 패션에서 의미와 가치가 높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몸의 표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적 표현에서의 몸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이를 분석해 보면 즉물적인 몸의 형태 표현, 몸의 형태에 대한 원근감 파괴와 확대, 과장적인 표현 그리고 몸의 형태에 대한 파편화된 표현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이념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원리는 몸에 대한 일반적 형태 개념과 다른 개인의 환상과 무의식에서의 미적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 개념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현실주의적 사고에 의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은 새롭고 혁신적인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

계 한 시도으로써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몸을 매개로한 패션, 패션아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오늘날 패션아트에서의 몸은 단순히 패션착장을 위한 틀이나 대상이 아닌 ‘패션은 바로 몸이다’라는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몸은 패션의 존재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표현에서의 몸의 형태적 특성은 패션아트로의 넓은 활용가능성과 함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화 예술적 표현기법을 가져옴과 동시에, 패션을 조형예술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패션아트의 아이디어 개발과 조형예술로서의 패션 발전을 위해 예술과의 연계를 연구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패션은 시대의 반영이며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그 표현이 다양하게 추구되어졌다. 패션의 흐름을 통해 사회 문화적 변화와 예술양식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인 흐름과 함께 ‘몸’의 이미지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술사조와 연관 지어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현대는 물질과 정신이 모순된 상반관계 속에서 많은 사상과 논리의 전개로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과 패션아트의 예술적인 적용과 이해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오브제를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다루었고 종래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한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작품의 몸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한 시대의 예술사조가 패션의 원천으로써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예술사조와 ‘몸’이 갖는 관계를 고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몸에 대한 선행연구와 초현실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몸의 형태표현을 파악하는 기초로 삼고자 하였으며 초현실주의 작품에 표현되는 몸의 형태를 분석하여 패션아트의 조형표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업에 몸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몸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보고 작업에 나타난 몸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이론적인 연구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연구되었던 ‘몸’에 대한 해석과 오브제 미술로서의 초현실주의와 관련 미술사조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적인 연구로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에 나타난 몸의 형태를 작가들의 작품사진과, 관련 서적,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집 등에서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하고 몸의 변형에 대한 표현을 시도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중 뚜렷한 몸의 변형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16점<sup>1)</sup>을 발췌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II. 초현실주의인인 오브제

### 1.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다다가 남긴 폐허에서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의 열망에서 비롯하여<sup>2)</sup>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인 1919년부터 약 20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위적인 문학예술운동으로서, 다다이즘과 미래주의 등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전위운동에 비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동안 가장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논쟁적인 문학, 예술운동이었다. 초현실주의의 발생은 1924년 브르통(Andre Breton)<sup>3)</sup>의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sup>4)</sup>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상적 기초는 1919년 문학지에 발표한 자장(Champs-Magnetiques)이라는 ‘시’ 작품에서 주장했던 사조로서 “이미지의 순수한 표현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의 방해와 통제가 없는 무의식적인 행위로서만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성에 대한 서구의 확신을 조롱하고, 현대 삶의 복잡성을 단일하게 분류, 범주화하는 데 대한 반감을 공유함으로써 다다는 초현실주의의 전조가 되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을 통한 의식의 교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것들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창조성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다다의 파괴

1) René Passeron이 저술하고 2001년 프랑스 Temail에서 출판된 ‘Surrealism’에서 다루고 있는 8점의 초현실주의 작품과 Fiona Bradley가 저술하고 김금미가 번역하여 2003년 열화당에서 출판된 ‘Surrealism’에서 다루고 있는 7점, Taschen에서 출판된 ‘Frida Kahlo’의 화집에 수록된 작품 1점.

2) Nikos Stangos, 성완경 김안례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p.190.

3) 브르통(Andre Breton): 1917년 이후는 아폴리네르, 아라공, T.수포, P.차라 등과 지내면서 오토마티즘에 의한 작품 「자장(磁場)」(1921)을 수포와 함께 지었으며, 다다이즘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문학 Litterature」, 「초현실주의 혁명 La Revolution」등 중요한 기관지를 발간하는 한편, 소설 「나자 Nadja」(1928), 수필집 「연통관(連通管) Les Vases communicants」(1932) 등의 중요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4) 초현실주의선언: 합리주의를 부정하고, 무의식의 외재화(外在化)에 의한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였다. 1924년에 ‘제1선언’이, 1929년에 ‘제2선언’이 출판되었다. ‘제1선언’에서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를 “구술기술, 그 밖의 모든 표현 방법으로 사고의 참다운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동기술법(오토마티즘). 이성에 의한 모든 검열을 배제하고 미학적 도덕상의 일체의 선입관으로부터 떨어져 이루어지는 사고의 참다운 복사”라고 정의하였다. ‘제2선언’에서는 초현실주의와 유물사관을 제창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함과 더불어 A.아르토, F.테스노스, A.마송, F. 피카비아 등으로부터 슈르레알리스트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적인 무정부주의와 구분된다. 정신적 운동으로서 시작한 초현실주의는 하나의 미술운동으로 전개되어 유럽 대륙과 영국, 미국, 멕시코, 일본 등지까지 영향을 끼쳤고 영화와 연극, 패션과 광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정신활동을 주제로 삼거나 혹은 주관성을 우선시하는 예술은 무엇이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말은 표현수단을 나타내게 된다.<sup>5)</sup> 초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애썼으며 현실을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서 논리적이고 실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현실에 도달하려 했다. 이러한 오브제의 본격적인 출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발생한 다다이즘(Dadaism)과 선구자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레다메이드(Ready-made)라는 기성품을 예술의 형식으로 끌어들이으로써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sup>6)</sup> 이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상투적인 의식의 습성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으며 기존 예술에 대한 신중한 반성과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진지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뒤이어 오브제 미술에 대한 방법과 실험이 끊이지 않았으며 드디어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에 이르러 무의식 세계를 표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차용했고 네오다다에서는 일상용품을 오브제로 채택하여 조형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확립한 활발한 오브제의 조형 논리는 회화의 평면 형식에서 벗어나는 기초적 원리를 제공하였으며 거기에 따르는 회화와 조각의 구분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 버려 예술의 영역을 보다 더 확장시켰다. 초현실주의는 인간 정신의 사고, 질서, 논리, 이성 등을 마비, 유희시키고 있는 사회 현실들을 변혁시키겠다는 혁명적 이념으로 인간 정신의 해방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는 인간의 미래와 자유의 원천이 되는 욕망의 개념들을 파헤친 프로이트의 이론을 신뢰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간의 정신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꿈의 해석, 성분능 이론 등의 정신적 측면에서 탐구한 예술운동으로서, 여러 작가들이 새로운 기법을 시도함으로써 현대미술 다방면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최초로 프로타주 기법을 창안하였으며 이중(double)영상 이미지의 표현과 콜라주, 데칼코마니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만 레이(Man Ray)의 오브제는 유용한 물체들을 쓸모없는 무용한 물체로 변화시킴으로써 사물의 무용성을 강조하였다. 또 각각의 성질이 다른 사물과 전혀 관련 없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본성이 지닌 미지의 것에 대한 표현으로 신비한 느낌을 주었으며 또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갖게 하여 사물이 갖고 있는 유용한 기능을 변질시킨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호안 미로(Joan Miro)의 주요 작품은 그 특유의 기호화한 대상을 배치하여 풍부한 공상과 강렬한 이미지로서 오브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는 편집광적 비평방법을 통해 특정한 형상의 반복과 이중영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역설과 왜곡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지닌 죽음과 욕망, 불안, 모순, 공포, 절망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 압도하는 무의식의 위력 등을

5) Fiona Bradley, 김금미 역, 초현실주의, 열화당, 2003, p. 74.

6) 위의 책, pp. 14-16.

숨김없이 표현하였으며 통속적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묘한 세계를 표현했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오브제는 회화적 묘사를 통해 언어의 의미가 상징물에 의해 전달되거나 혹은 차단되도록 하여 고립과 변형, 합성과 부조화의 창출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발생시키고 시각적 동음이의어와 역설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자(Surrealist)들의 논리는 오늘날까지 새로운 의식과 표현 방법으로 재창조되어 예술 양식의 주요 이념을 형성하고 조형예술의 커다란 변모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앵포르멜(Informel)과 팝 아트(Pop Art)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조형 이념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다양한 시도와 발전을 거듭해 플럭서스(Fluxus)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플럭서스(7)는 20세기 초에 역사적 극단주의와 실험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술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등장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미래주의를 근간으로,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의 가장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운동이다. 플럭서스는 단어가 지닌 흐름, 변화, 끊임없는 움직임이란 의미가 보여주듯이 그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플럭서스를 명명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한 조지 마키우나스(George Maciunas)에 의하면 플럭서스를 사회적 집단주의, 반 개인주의, 반 유럽주의, 반 직업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예술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sup>8)</sup> 인간의 무의식은 분명한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무의식의 확인을 작가의 내면에서부터 표출하기 위해,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맞추었고, 초현실주의의 개념의 원리와 표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2. 초현실주의의 미술과 오브제

일루전 미학의 거부는 20세기 주요한 예술 흐름인 ‘오브제 미술’이라는 형식을 탄생시켜 마침내 오브제 미술을 빼놓고 현대미술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미술사에서 오브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오브제 미술은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장으로의 관점을 제시했으며, 가시적인 세계를 재현하기도 하지만 불가시적 세계인 정신의 영역까지 넘나들으로써 직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의 영역을 확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팽창시키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20세기의 미술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예술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오브제 해석은 다다이즘의 ‘즉물적 인식’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오브제’ 그 자체를 인간의 ‘관념적 물상’에 도입하여 심리적 충격과 당혹감을 일으켜 무의식의 신비한 세계로 몰입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즉 초

7) Fluxus: “모든 것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genesis), 흐름(flux)의 철학은 주창한 헤라클리투스(Heraclitus, 535-475 B.C.)의 말에서 조지 마키우나스가 따온 것이다.

8) G. Adriani, W. Konnertz, k. Tomas & Joseph Beuys, *Life and Work*, trans, Patricia Lech, Woodberry: Barron's, 1979, pp. 82-83.

현실주의자들의 오브제 작업은 현실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인간 내면의 환영까지 추적해냄으로써 또 다른 오브제의 의미를 나타나게 한다.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내적인 욕구가 없이 작품을 제작했을 때 거기에는 환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묘사했다기보다는 가능한 것에 꿈과 소망을 덧붙여 환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오브제 작품들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통해 일종의 연상과 환상의 기능을 회복시켜, 평범한 현실적 의도를 뛰어넘어 상징적이고 시적인 오브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발견’이라는 개념이며 그 대상의 유일성은 아니라고 말했듯이, 오히려 산업 사회의 모순과 팽배해가는 물질만능주의에서 오는 예술 작품의 상품화 및 고정화한 조형 의식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예술의 상품화란 작가의 개성과 인격, 그리고 창조성에 대한 타락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그는 카반느(Pierre Cabbane)<sup>9)</sup>와의 대화에서 개성과 창조를 신성시하는 근대적 예술관에 대한 반항과 거부로서의 반 예술을 이야기했다. 그는 선택은 하였지만 가공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그의 레디메이드의 오브제는 큐비즘의 감상을 위한 보조적 성격이 아니고 실존의 성격이 있는 실물 오브제이다. 그러므로 뒤샹의 반 예술은, 순수하고 전통적인 예술을 거부하는 ‘비예술’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은 결국 일종의 또 다른 예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일상의 단순한 생활용품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독특한 의미부여를 시도하여, 일용품의 유용성과 그 가치를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렇듯 다다이스트들의 조형 논리는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브제는 앗상블라주(Assemblage)<sup>10)</sup>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발전한다. 앗상블라주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긋어모으다’, ‘집합하다’라는 의미로, ‘폐품 문화’의 일종이며, 그리고 조소한다는 종래의 기법에 반대하고 오브제를 통하여 ‘제시한다’는 현대 미술의 한 양식으로 서, 네오다다, 콤바인 아트, 팝 아트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앗상블라주의 대표적 작가인 장 뒤비페(J. Dubuffet)<sup>11)</sup>의 작업은 모래, 시멘트, 콜타르, 아교 등으로 바탕칠 한 것을 긋어내면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것은, 캔버스를 어떤 형상을 이루기 위

9) 피에르 카반느(Pierre Cabbane) 비평가 겸 미술사학자. 카반느는 미술에 관한 많은 저서들을 썼으며, 모두 수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투벤스」, 「큐비즘의 서사시」, 「마르셀 뒤샹과의 대화」, 「19세기 미술」, 「드가 선생님」, 「렘브란트」 등이 있다. 그는 「조형예술사전」의 저자이며, 프랑스 국내 및 외국의 주요 잡지에 기고하고 있고, 라디오, 텔레비전의 문화기획물의 현출을 받았다. 또한 포트리에, 클라베, 메사지에, 렘브란트 등 예술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작가론을 썼다.

10) 앗상블라주는 프랑스의 화가 장 뒤비페(J. Dubuffet)가 자신의 작품을 피카소와 브라크의 콜라주와 구분 지으려는 의도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였다. 이후 미국의 윌리엄 세이가 1961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앗상블라주의 미술(The art assemblage)전람회를 기획하면서 다다, 초현실주의 이래의 오브제의 현대적 호칭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11) 뒤비페(Dubuffet, Jean-Philippe-Arthur: 1901.7.31~1985.5.12) 프랑스의 화가. 앗포르멜 미술의 선구자. 1918년 파리로 나와 단기간에 그림을 배우고, 주로 독학을 했다. 생활을 위해 한때 그림을 포기한 적이 있으나 1942년부터는 그림에 전념했다. 작품은 타르, 모래, 유리 등 여러 종류의 정크(폐물)의 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소재의 직접성이 박력 있는 목직판 마티에르를 낳는다. 거기에 형성된 인간의 얼굴이나 여러 형상에는 낙서나 어린이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소박한 선의 자유스러움이 살아 있다. 1948년 아르 브뤼(생경한 예술)라는 이름 밑에 주로 정신병 환자의 작품을 많이 수집하였다.

한 하나의 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물적 재료를 동원한 것이다.

초현실주의 오브제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다. 초현실주의는 꿈의 전능성, 무관심의 적용 등에 잠재해있는 억압<sup>12)</sup>된 연상의 실제 속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으며 생명의 기본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계적 심리기제를 파괴하고 초현실성을 대치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꿈과 무의식, 충동적인 것들의 영역을 결합시킨 것이다. 초현실주의가 표현한 방법은 바로 ‘색다른 낮설음’이었으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낮익은 사물들을 일상적 맥락에서 떼어놓음으로서 성취를 가지려 하였다. 형태의 왜곡으로 혼돈을 피하는 데포르마송, 낮설음과 당혹스러움을 보여주는 콜라주와 몽타주, 순수한 심리기제로의 오토마티즘은 인식과 표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꿈을 표현해 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화되고 편협화되어 버려서 똑같은 삶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며 초현실주의자들의 이러한 사고는 초기의 초현실주의 선언<sup>13)</sup>에도 보여지며 결국 이들의 목표는 초현실계의 창조적이고 순수한 오브제의 창조였다.

### III. 패션아트인 몸

#### 1. 패션아트

패션이란 특정시간과 장소에서 대다수의 집단에 의해 수용되거나 한 가지 스타일이 지속되는 유행의 변천과정으로 한 시대 및 장소의 일반적인 사상, 경제, 문화, 예술 등을 반영한다.<sup>14)</sup> 세계 대공황과 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상적이며 자극적인 초현실주의 예술은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패션광고와 잡지, 윈도우 디스플레이, 장신구, 의상 등 패션계 전반에 독특한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Vogue와 Harper's Bazaar같은 패션 잡지들은 초현실주의 스타일의 모드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5)</sup> 패션아트는 예술적인 의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입을 수 있는 예술’의 의미로 한정시키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한 의상으로서, 수공예적 요소를 부가한 의상으로서 보다 광범위

12) 「억압」은 주로 <불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저술로 프로이트의 <불안>에 대한 견해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토 랑크는 1924년 발행된 「출생의 외상」에서 프로이트의 견해를 수용하였고 더 나아가 모든 불안 발작이 출생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펼쳤으나 프로이트는 이 견해를 반박하고 그 동안 발전시켜 왔던 <불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다.

13) <초현실주의 1차 선언문, 1924년> 초현실주의란 이전에 무시해 온 결합된 어떤 형태가 갖는 우월성, 꿈의 무한한 힘,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고의 역할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초현실주의 2차 선언문, 1929년>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거의 자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나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미개척 분야를 밝히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목적이다.

14) Mary B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 1975, p. 306.

15)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7, p. 217.

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16)</sup> 이렇듯 패션아트는 입을 수 있건, 없건 간에 그 매개가 인간의 몸이고 패션 아트 작가들은 의상을 이용해 인간의 욕망, 죽음, 젠더, 정체성, 성적쾌락 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예술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대중들에게 보여 왔고, 어느 시점에서는 문화를 리드해 나가는 하나의 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의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표현에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한 예술정신의 자유의지를 위한 모티브의 하나로 그 중심점에 항상 인간의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술은 전 시대에 걸쳐 에로틱한 주제를 다루어왔다. 왜냐하면 성은 모든 인간 생활의 근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태초에 인간이라는 하나의 생물체가 존재하던 때부터 인간의 삶과 섹스, 섹슈얼리티, 에로스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갖은 형식을 빌어 세상의 모든 성은 예술가에 의해, 때로 세상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수줍고도 은밀한 구조로 대중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중 패션은 매우 즉각적으로 성을 다루고 있으며 그 매개체는 인간의 몸이다. 패션의 표현은 여러 유형으로 발전해가면서 기존의 사회규범과 충돌을 하게 되고 초현실주의 표현방법으로 예술적으로 발전하였다. 패션과 패션아트에 있어 초현실주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카테고리이며, 몸의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표현의 변화를 수반하며 발전되었다.

패션에 초현실주의적 표현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작가는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의 하나였던 초현실주의가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때, Schiaparelli의 주변에는 초현실주의자인 달리(Dali)를 비롯하여 장 콕토(Jean Cocteau), 크리스티앙 베라르드(Christian Berard), 반 동강(Van Dongen) 등과 같은 많은 화가들이 아이디어의 제공자로서 모여 있었고,<sup>19)</sup> 이들과의 교우관계는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녀의 디자인을 놀라움과 충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배경이 되었다. 놀라움과 충격으로 대변되는 스키피아렐리의 대담한 디자인은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에서 전혀 시각을 달리하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워진 비합리의 무의식 세계를 현실로 끌어내는 초현실주의의 표현방법이며 패션아트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패션에서의 직접적인 예술표현은 ‘아트 투 웨어’, ‘아트 웨어’, ‘아트 웨어러블스’, ‘웨어러블 아트’, ‘언웨어러블 아트’, ‘아트패션’, ‘의상조각’, ‘패션조각’, ‘예술의상’, ‘미술의상’의 다양한 용어로 그 역할을 대표하며 발전하였고 국내에서는 1997년 개최된 ‘패션아트 페스티벌’ 전시를 시작으로 일반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sup>20)</sup>

16) 허정선,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 8.

17) 이브 미쇼, 몸의 이미지 오늘날의 영혼에 대한 질문, 한림미술관, 이대 기호학연구소 엮음, pp. 35-39.

18) Peter Webb, *The Erotic Art*, Nikos Stangos, 1995, p. 10.

19) Palmer White, *Elsa Schiaparelli*,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6, p. 82.

20) 허정선, 위의책, pp. 6-8 참조.



## 2. 몸의 미술적 개념

인간이 몸<sup>21)</sup>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재조명되고 활발하게 논의 된 것은 서구 모더니즘이 지닌 편견과 오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이다.<sup>22)</sup> 지난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은 몸에 의지해 살아가면서도 몸을 간과해왔다. 플라톤(Platon) 이래 서양 철학사에서 몸, 육체는 진리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 ‘영혼의 감옥’ 정도로 비하해 왔다. 데카르트(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도 몸의 의미를 간과한 표현이다. 정신을 중시하고 몸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이분법은 서구의 근대 이성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문화의 성장과 여성운동의 발전은 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푸코(Foucault, Michel Paul)는 몸이 근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서 몸을 통해 어떻게 권력행사가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19세기 의료,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몸이 어떻게 권력행사의 지점이자 저항의 지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몸과 관련된 담화와 실천이 이데올로기적인 주체를 어떻게 산출하며 특정 권력과 능력을 가진 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몸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개인의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알려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전후의 소비자 문화, 예술 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스트 운동 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시각예술에서도 몸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사진, 회화, 조각, 영화 등 각 매체마다 몸을 소재나 주제로서 표현해왔다. 시각예술 가운데 미술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로 여기서의 몸은 살아 있는 육체와 다르다. 재현과정에서 몸은 그 자체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난다. 재현된 몸은 몸뿐만 아니라 일련의 은유적인 의미들로 재현된다. 결국 몸은 코드화 된 기호이자 이미지로 표상되는 것이다. 몸이 간직한 기억과 육체를 기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표상 방식은 이미지를 매개로 한다.<sup>23)</sup> 서양의 근, 현대 미술은 몸을 통해 모든 것을 재면서 눈으로 보는 세계를 몸의 욕구 언어로 번역했다. 몸이 지닌 욕구의 내용과 형식이 시각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알아 가는 만큼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혀갔고 이와 같은 시각적 체험의 결과들은 미술의 역사를 형성했다.<sup>24)</sup> 서양미술사는 이런 체험을 이론과 실천의 역사적 집적 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과 시각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결과물을 지배한 권력을 시각화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되게 다루는 몸의 형태는 현상학에서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몸의 기호학적이고

21) 몸(body)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조건이다.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몸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몸은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적 측면을 가진다. 몸은 생물학적이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는 의미로서 본 논문에선 몸을 육체, 신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22) 박현신,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 21.

23)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1999, p. 268.

24) 이거룡 외, 위의책, p. 287.

해석학적인 활동에 주목한다. 몸은 하나의 물질로 기능과 시스템, 파워를 가졌다. 현대에 있어서 신체의 모델은 의학, 종교, 경제와 기호의 네 가지 시스템으로 이상형을 만들어 간다. 신체는 감각정보의 선택과 동조, 증폭이 가공되어지는 우리들 자신의 기본적인 미디어이며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변환기이며 해석기이다. 거기에 의식의 개입은 우리의 세계경험과 신체적 감정을 변용시킨다. 몸은 나와 타인, 유기체와 무기체, 몸과 세계간의 경계를 없애면서 상반된 것들의 모순을 외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예술의 대상이며,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2차 선언에서 말했던 삶과 죽음,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소통할 수 없는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더 이상 모순된다고 느끼지 않는 정신의 어느 지점을 체화<sup>25)</sup>한다. 또한 실재의 재현이라는 전통적 의미기능에서 벗어나 실재를 지배하거나 혹은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로 존재하게 되었다.<sup>26)</sup>

### 3. 몸과 패션

스킨 컨셔스(skin conscious)에 스포티한 감각, 피지컬 센스, 관음성을 내포한 것이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란 단어이며, 이는 우리들의 신체의식, 또는 피부감각이 점점 더 섬세한 강도를 더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오브제보다도 감지되는 물질로서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추가 되는 신체주의가 일반적인 바디아트<sup>27)</sup>의 영역으로 급속하게 부각되었고 이는 패션아트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up>27)</sup> 80년대에 이르면 바디 컨셔스 즉 신체표면을 덧대고 그런 듯 재봉하여 신체라인을 노출시킨 디자인 폴리시(design policy)가 등장하며 80년대 후반에는 더욱 더 몸이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스킨 컨셔스로 유포된다. 이어 90년대 초반에는 피부를 어루만지는 듯 한 매우 얇은 천이 접촉된 부분의 온도에 반응하여 변색하는 피부감각을 갖게 되는 옷까지 등장했다. 그것은 움직이는 오브제로서의 자기신체라기 보다는 입었을 때의 미세한 감촉, 즉 오토 에로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감각을 중요시한 옷, 요약하면 살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부와 피복의 연장이 된다.<sup>28)</sup>

패션의 주제는 인간 신체의 부분들로 옮겨간다. 가슴, 허리, 힙, 엉덩이, 다리, 팔, 신체 자체의 길이, 패션 변화의 주제로서의 신체 기관들이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신체의 특정부위가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강조된다. 패션에서 가슴과 다리는 ‘대립항’이다. 만일 어떤 시즌에 목선이 내려와 결과적으로 가슴이 매력의 중심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음 시즌에는 가슴이 가려지고 다리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된다.<sup>29)</sup>

25) André Breton, "Second Manifeste du surréalisme", in *Oeuvres complètes*, édition établie par Marguerite Bonnet avec la collaboration de Philippe Bemier, Etienne-Alain Hubert et José Pierre,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t. I, 1988, p. 781.

26) 박현신, 앞의 책, p. i.

27) 허정선, 앞의 책, p. ii.

28) 鷺田清一, 最侯のモード, 人文書院, 1993, p. 79.

의복의 형태는 우리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는 의식이나, 의식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잠재의식 사이의 일종의 흥정, 계략, 책략, 상술에 의해 결정된다. 의복의 형태는 신체의 존재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인체의 볼륨이나 윤곽을 감추도록 구성되거나 모방하기도 하고, 역으로 신체가 부각 되도록 조이거나 과장시켜 구성하기도 한다.<sup>30)</sup> 이는 모두 개인적인 ‘이상미’에 대한 현실, 초현실의 표현이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몸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짓는 영원성은 패션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패션은 계속해서 강조사항을 변경해야만 그 목적을 유지시킬 수 있다. 여성 신체의 모든 측면은 노출, 반 노출, 또는 디자이너들이 알고 있는 다른 수단들에 의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강조점의 변경이 몸의 성감대 이동이며, 이것이 패션의 전반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듯 몸과 패션은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 IV. 초현실주의 작품의 몸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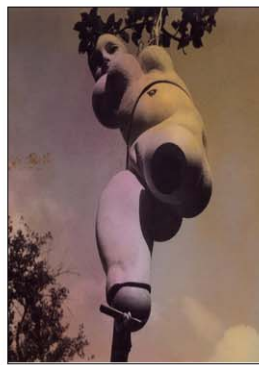
18세기 말 이후 미술은 몸의 부분적 이미지, 잘려나간 몸, 산발적으로 파편화된 이미지를 비롯하여 폐허와 절단과 같은 이미지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문명 이전의 총체성, 즉 유토피아적인 전체성에 대한 상실을 대변하는 노스탤지어와 비애를 표현하였다. 그러한 감정은 의도적인 파괴주의를 통해 재현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방식의 시각, 즉 초현실주의의 개념이 된다.



<그림 1> Salvadore dali,  
Young Virgin  
Auto-Sodomised by her  
Own Chastety, 1954



<그림 2> Alain  
Bourdonnais, The Doors



<그림 3> Hans Bellmer,  
Doll, 1935-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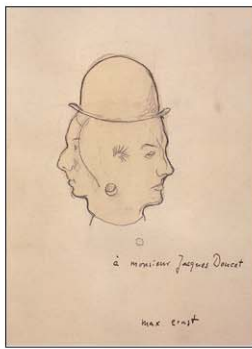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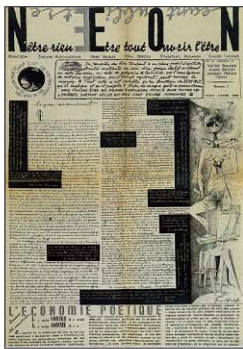


<그림 4> Victor Brauner,  
The Unhappy  
Experience, 1951

29) Bergler, E., *Fashion and the unconscious*. In *Modesty in Dress*, J. Laver(Heineman), 1969, p. 37.

30) 鷺田清一, 앞의책, p. 77.

본 논문은 몸의 형태에 대한 초현실적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몸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에서 현대의 패션아트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빈번히 나타나는 중점적인 테마이다. 초현실주의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랑, 욕망, 성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투영체로서의 여성의 몸에만 주목해 왔다.<sup>31)</sup> 이러한 연구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여성의 몸을 성적 결정체로 지나치게 이상화했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의 도구로 과도하게 폄하했다는 극단적인 해석을 내렸다.<sup>32)</sup> 자연이나 어떤 대상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던 예술이 오늘날은 인간에 대한 탐구, 정신적 세계에의 탐구, 작가 자신에의 탐구의 한 표현 수단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순수예술이라고 칭하는 분야의 범주를 벗어나 공예와 디자인에서 패션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분야로 확대되고 발전되었으며 패션의 경계와 역할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중 패션아트는 주목할 만 하다.



<그림 5> Cover of the first issue of Neon, 1948

<그림 6> Hans Bellmer, Nude from the back with spike heads, 1961

<그림 7> Max Ernst, Double portrait de Paul Eluard and Max Ernst, 1925

<그림 8> Hans Arp, Dancer, 1925

본 연구에서 미술작품의 초현실주의 표현이 나타난 대표적인 작품 16점에 대한 몸의 형태표현을 분석해 본 결과 ‘즉물적인 형태표현’, ‘원근감 파괴적인 표현’, ‘몸의 파편화된 표현’이 나타났다. 첫째, 즉물적인 표현법은 작가의 즉물적인 시선의 방식을 형상화하여 몸의 형태를 표현한다. <그림 12> Raul Hausman의 작품 미술평론가를 보면 얼굴의 눈, 입의 강조와 함께 오브제의 플라쥬 믹스가 보여진다. 얼굴과 눈, 입의 일부분만을 클로즈업한 이 작품은 인물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차단하면서 차가운 이미지를 던져준다. 또한 심도와 원근법을 해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보니 체르(Bonizer)가 말하는 ‘촉각으로 느끼는 눈’을 요구한다. <그림 2> Alain Bourdonnais, The Doors 와 <그림 9> Andre Masson작품, Man Ray촬영의 새장을 뒤집어쓰고 있는 마네킹, <그림 15>

31) 여러 연구서중 특히 Robert Benayoun, *Erotique Surréalisme*, Paris, Pauvert, 1978과 Xavière Gauthier, *Surréalisme et sexualité*, Paris, Gallimard, 197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32) 조윤경, 몸의 이미지와 일탈의 글쓰기. 불어불문학회지, 2003년 하계, p.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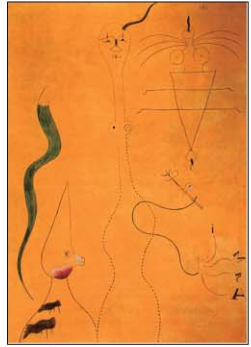
Francis Marshall의 *Bonjour Madame*은 커튼 문, 새장, 마네킹 등의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취부로 과장되고 인위적인 몸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오브제는 정신적 연상에 의해 인간의 몸과 절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되며 오브제는 시선을 가진 형상으로 의인화되어 즉물성을 강조한다.<sup>33)</sup>



<그림 9> Andre Masson, Man Ray촬영, 새장을 뒤집어쓰고 있는 마네킹, 1938



<그림 10> Salvadore dali, 자신의 몸이 계단과 기둥의 세 척추, 하늘 및 건축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벌거벗은 나의 아내, 1945



<그림 11> Joan Miro, B부인의 초상,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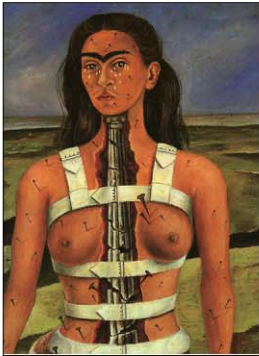
<그림 12> Raul Hausman, 미술평론가, 1919-1920

둘째, 몸의 형태에서 원근감과 공간을 파괴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6> Hans Bellmer의 *Nude from the back with spike heads*는 몸에 대한 주관적인 구성과 함께 원근감과 공간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극단적인 일그러짐이 보인다. 전경과 후경을 과장되게 분리하고 확대시키는 인체 구성은 작가의 감성충족에 필요한 몸의 부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 정상적인 몸보다 쉽게 작가의 초현실적인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sup>34)</sup> 이렇게 재해석된 몸의 형태는 지극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표현되며 사실적인 느낌보다 고립성, 비현실성, 비 일상성을 내포한다. 또한 몸의 공간은 임의로 분할되고 임의로 결합된다. <그림 4> Victor Braune의 *The Unhappy Experience*는 불쾌한 기억의 순간을 몸의 왜곡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몸은 소화기관이 제외된 감정기계로 표현되어 본래의 신체공간을 왜곡한다. <그림 5> Cover of the first issue of *Neon*에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여러 가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계화된 몸의 표현이 보인다. 여기서 몸은 다용도의 물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처럼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Max Ernst의 *Double portrait de Paul Eluard and Max Ernst*에는 몸 특히 머리의 합체로 다중의 이미지와 능력을 갈망하는 작가의 환상이 하나로 합체된 두 개의 두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0> Salvadore dali의 *자신의 몸이 계단과 기둥의 세 척추, 하늘 및 건축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벌거벗은 나의 아내*와 <그림 13>

33) René Passeron, *Surrealism*, Terrail, 2001, pp. 176-182.

34) 위의 책, pp. 146-154.

Frida Kahlo의 La colonne brisée는 몸의 구조를 건축구조로 변형시키면서도 인간의 감정은 과장되게 표현하여 정신과 감정기제로의 신체공간을 역설하고 있으며, 몸의 왜곡을 설득한다.



<그림 13> Frida Kahlo, La colonne brisée, 1944



<그림 14> Man Ray, Jacqueline Goddard as a Nun, 1934



<그림 15> Francis Marshall, Bonjour Madame



<그림 16> Hans Bellmer, Doll, 1936/1965

셋째, 몸의 형태에 대한 파편화적인 표현이다. <그림 1> Salvadore dali의 Young Virgin Auto-Sodomised by her Own Chastety와 <그림 3>, <그림 6> Hans Bellmer의 Doll은 인체의 확대, 과장과 함께 파편화 된 몸의 구성을 선보인다.<sup>35)</sup> 여기서 몸의 부분들은 본래의 기본 구성에서 이탈되어 불안과 공포의 시각적인 장치로서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면서 극대화된다. <그림 8> Hans Arp의 Dancer와 <그림 16> Joan Miro의 B부인의 초상은 초현실의 선과 형을 인체화시켜 몸의 경계를 외부공간으로 확장시켰다. <그림 14> Man Ray의 Jacqueline Goddard as a Nun의 두상은 본래의 경계면으로부터 평면화되고 연장된 표현으로 몸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파편화된 조형의 초현실적 새로움을 보여준다.

## V. 결론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미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의식에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규명하려는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이념은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들의 열거와 형태 왜곡, 사물의 병치로 인하여 생기는 환상적이고도 불가사의한 표현들은 패션 분야에도 쉽게 반영될 수 있었다. 현대의 패션은 건축이나 문학, 음악, 회화, 그리고 조각의 경우에서처럼 특별한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된 예술의 한 형태이며, 그것

35) 앞의책, pp. 154-162.

을 창출해내는 사회의 영감과 욕구를 반영한다.<sup>36)</sup> 현재까지 예술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예술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의 세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sup>37)</sup> 오늘날 패션아트는 모든 조형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패션아트의 조형예술성은 여러 가지 예술사조와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션과 아트는 그 양상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술사조의 하나인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초현실주의 작품에 나타난 몸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종래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인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정신의 회복과 해방을 이루고자 한 초현실주의는 20세기 현대 조형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으며 패션에도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특징은 현대패션에서 의미와 가치가 높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몸의 표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적 표현에서의 몸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이를 분석해 보면 즉물적인 몸의 형태 표현, 몸의 형태에 대한 원근감 파괴와 확대, 과장된 표현 그리고 몸의 형태에 대한 파편화적 표현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이념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원리는 몸에 대한 일반적 형태개념과 다른 개인의 환상과 무의식에서의 미적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개념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현실주의적 사고에 의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은 새롭고 혁신적인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한 시도으로써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몸을 매개로한 패션, 패션아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논의와 분석을 보면 초현실주의 표현에서의 몸의 표현 문제는 결국 작가의 개인적인 장면화로 귀결되며 몸의 형태는 장면을 결정짓는 매개이다. 많은 작가들은 몸이 지닌 기호성과 의미를 초현실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해석과 표현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실체로서의 몸은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패션아트에서의 몸은 단순히 패션착장을 위한 틀이나 대상이 아닌 ‘패션은 바로 몸이다’라는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몸이 패션의 존재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표현에서의 몸의 형태적 특성은 패션아트로의 넓은 활용가능성과 함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예술적 표현 기법을 가져옴과 동시에, 패션을 조형예술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패션아트의 아이디어 개발과 조형예술로서의 패션 발전을 위해 예술과의 연계를 연구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정신세계를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현대미술과 패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표현되는 초현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초현실주의를 거쳐 자유롭게 표현된 몸의 형태가 21세기 미술과 패션아트에서는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변화되었는지에

36) Marilyn J. Hom and Lois M. Gurel, 이화연역, 제2의 피부, 까치사, 1988, p. 382.

37) 위의 책, p. 22.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접수: 2005년 3월 23일)

### 【참고문헌】

- 데이비드 보드엘, 크리스틴 톰슨, 주진숙 역, *영화예술, 이론과 실천사*, 1992
- 박현신,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1999
- 이브 미쇼, *몸의 이미지 오늘날의 영혼에 대한 질문*, 한림미술관, 이대 기호학연구소 엮음, 2004
- 허정선,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鷺田清一, *最侯のモード*, 人文書院, 1993
- André Breton, "Second Manifeste du surréalisme", in *Oeuvres complètes*, édition établie par Marguerite Bonnet avec la collaboration de Philippe Bernier, Etienne-Alain Hubert et José Pierre,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t. I, 1988
- Bergler, E., *Fashion and the unconscious. In Modesty in Dress*, J. Laver(Heineman), 1969
- Fiona Bradley, 김금미 역, *초현실주의, 열화당*, 2003
- G. Adriani, W. Konnertz, k. Tomas & Joseph Beuys, *Life and Work*, trans. Patricia Lech, Woodberry: Barron's, 1979
- Laver, J., *Modesty in Dress*, 1969
- Marilyn J . Horn and Lois M.Gurel, 이화연역, *제2의 피부, 까치사*, 1988
- Mary B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 1975
- Nikos Stangos, 성완경 김안례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 Peter Webb, *The Erotic Art*, Nikos Stangos, 1995
- Palmer White, *Elsa Schiaparelli*,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6
- René Passeron, *Surrealism*, Terrail, 2001
-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7
- Robert Benayoun, *Erotique Surréalisme*, Paris, Pauvert, 1978
- Xanvière Gauthier, *Surréalisme et sexualité*, Paris, Gallimard, 1971



# A Study on the Surrealism expressed for Fashion Art

## - Focused on the Human Body expression -

Instructor, Dept. of Total Fashion, Woosong Information College. **Lyu Keun-J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Gaang Byoung-suk**

Art of modern ages has developed in formative surrealist sense by having various expressive arts as its basis. This research process used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demonstrative research side by sid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s of research raised above. Theoretical research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related publications and analysing examples appeared, on expressions of Surrealism, aspects of Surrealism in Art and how it was applied in Human Body. As a demonstrative research practical work will be produced in order to understand expressions of Surrealism and present more active applications in fashion Art in futur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First, Surrealism denied traditional expressions of art and explored world of sub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by doing so aimed to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human Body.

Second, expressive techniques used by Surrealist had distinctive features, unique to each artist. As well as suggesting detailed methods in depicting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dream and vision, they expressed in their painting and sculpture images conceived from basic human needs and desires.

Third, Artist, who were influenced by Surrealism, produced fantastical, diverse and enlarge works, daring and instinctive designs with infinite freedom, and this is along the same line with characteristics of Surrealist works.

As such Surrealistic ways of thinking and expressive techniques and methods were investigated and researched, and influences on design nowadays. Especially in fashion art influence of Surrealistic ways of thinking, techniques can be described as broad and long lasting.

**Key words** : Surrealism, Human Body, Fashion Art